

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1

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[시 119:71-72]

- ✚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다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합니다.
- ✚ 그들은 “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없이 더 나은 환경을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은가”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
- ✚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(ㅁ ㄴ ㄹ)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
- ✚ 이걸 마치 어린 자녀가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길 바라며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.
- ✚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'내 아이를 위해서'입니다.
- ✚ 아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를 우리는 결코 '좋은 부모'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
- ✚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.
- ❖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경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경험을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- ✚ 많은 사람들이 주제의 질문을 갖는 이유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.
- ✚ 고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 "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(ㅈ ㄷ ㅅ ㅊ)이 되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."
- ✚ 만일 고난을 피하고만 싶어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을 고티가 마주한다면 "당신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기를 포기하셨군요"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.
- ✚ 도스토예프스키는 "고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. 황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 순화되는 겁니다. 천상의 왕국은 (ㄴ ㄹ)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."라고 말했습니다.
- ✚ 그가 고뇌하는 과정을 불편해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"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행복이라면 고뇌를 갖지 않는 뇌사상태에 빠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겠군요. 당신은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?"라고 물을 겁니다.

✎ 말할 수 없고, 들을 수 없고, 볼 수 없는 3중고의 시련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헬렌 켈러는 "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(고통)은 거의 없다."라고 말했습니다.

✎ 고통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헬렌 켈러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기 적합하고 절망에 빠지기 합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.

✎ 이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일상의 (현실)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것들이 고난의 불길 속에서 정화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남겼습니다.

❖ 오늘 이들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내 삶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저명한 인생의 선배들의 말에 공감 하시나요?

✎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. "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"

✎ 그는 왕이 되기까지 왕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 10년을 도망자로 지내고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입니다.

✎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.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지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.

✎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좌에서 내쫓겼습니다. 하잘것 없는 자가 나와 저주를 퍼부을 때도 다윗은 침묵합니다.

✎ 이 고난들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을 주었는지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. "내가 주의 (주)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. 주의 (주)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."

✎ 고난이 유익인 것은 (고난)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것에 있으며,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(성숙)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. [잠3:18]

✎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의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입니다.

❖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는지,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.

✕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. 본문의 질문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.